



목적이다. 현대차그룹의 지원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지정 서울대 소재·부품·장비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유관 기관, 기업 정보·기술·경영 전문 컨설팅 회사 등 외부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비전, 경영전략, 연구개발, 제품 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킹 등 통합 자문 지원 플랫폼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과기정통부 지정 서울대 소재·부품·장비 협의체'사업단장이자 본 사업 책임자인 곽승엽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완성차 업체, 소재·부품·장비의 서플라이 체인, 정부 그리고 대학이 하나의 팀이 돼 한국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상생 프로그램의 적극적 실행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완성차-대학-정부가 협력하는 미래차 사업다각화 미래가치 창출 컨설팅 사업은 자금력과 정보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재부품기업들에게 미래차 소재부품 산업 변화에 대비하는 새로운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서울대도 국가 산업 발전에 일조함은 물론 사회적 책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서울대와 현대차를 비롯한 미래차 사업다각화 미래가치 창출 컨설팅 사업 참여 기업과 협력 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지난 2월 현대자동차그룹,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자동차 부품산업 미래차 시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산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서울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의 견인차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